

PA-79

신품종 ‘청풍찰수수’ 기계정식에 적합한 육묘 바닥재료 선발

이재선^{1*}, 문혜림¹, 김민자¹, 김인재¹¹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서론]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청풍찰수수’는 2021년 품종등록된 품종으로 수량성이 10a 당 357 kg으로 다수성 품종이며, 초장이 110 cm 미만으로 도복에 강하고, 콤팩인을 이용한 기계화 수확에 적합한 품종이다. 충북의 수수 재배면적은 641 ha로 국내 재배면적 41% 차지하는 수수의 최대 생산지이다. 수수의 수확작업의 기계화율은 90% 이상으로 높으나 파종단계의 기계화율은 10% 미만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수수 기계이식 재배 적합한 묘 길이는 15~20 cm 정도가 적당하고 플러그묘의 뿌리 엉킴이 많아야 이식 작업시 결주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묘 생육일수는 15일 정도로 육묘기간이 20일이 초과하면 수량성과 안정성이 감소된다. 따라서 본 시험은 신품종 청풍찰수수 기계이식에 적합한 플러그육묘의 바닥재를 선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신품종 ‘청풍찰수수’를 시험재료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파종은 기계 이식 전용 트레이 규격 200공을 사용하였고, 육묘기간은 10일, 15일, 20일 3처리를 두었다. 육묘를 위한 바닥재료를 선발하기 위해 하우스형 접이식 참깨 건조대, 농업용 흰색 부직포, 농업용 양생 보온재를 사용하여 바닥재의 육묘기간에 따른 규격묘 생산율, 지상부 및 지하부 생육과 뿌리 엉킴을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5일, 20일 육묘에서 건조대 보다 부직포와 보온재가 묘 생육이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플러그묘의 뿌리엉킴은 기계정식기 이용시 시 안정적인 정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15일 육묘에서 보온재가 90% 이상로 가장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수수를 기계정식할 때 묘길이는 15~20 cm가 적당하며, 이보다 크기가 작거나 클 경우 기계정식 시 결손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육묘일수는 15일이 가장 적당하며, 바닥재는 농업용 양생 보온재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 연구사업(과제번호: PJ01626123)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wings3924@korea.kr Tel, +82-43-220-5561